



철의 노동자 평택지회

조합원 중심!
현장 고용안정!
현장 통제 OUT!

제14-06호 / 2026년 7월 13일 / 전화(031)680-6800-8 / 팩스:681-2888 / md.kwmu.kr /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 이시열

14기 1년차 임시대의원 회의 마무리

7월 10일 평택지회 임시대의원 회의가 참가한 대의원 동지들의 힘찬 결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로써 26 임/단투에 조합이 집중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였습니다.

올 임/단투는 14년간 사측이 쥐고 있던 현장 권력을 되찾아 오는 투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상의 지나치기 쉬운 것, 에이 이걸 아니겠지 하던 것들이 모두 현장권력입니다. 아침체조의 문제, 안전보건 EVENT등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이용해왔던 결과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당당하게 선언 합니다. 이후 저들에게서 현장의 권력을 되찾아 올 것입니다. 그 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들만 바라보고,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하여 반드시 현장권력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올곧은 길을 갈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현장의 권력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 현장권력 어떻게 찾아 올건데.....!!!

사실 이 질문에 답하라 하면 집행부 또한 막막합니다. 지난 14년의 시간이 너무도 길었기에 싸우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허나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우선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작은 것부터 실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투쟁의 성과물, 승리의 과실을 조합원 동지들과 나누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투쟁의 깃발을 움켜쥐고 발 맞추어 나아 갑시다.

■ 안전보건 이벤트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금번 사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 EVENT 조합원들 개개인의 다짐만으로 해결될 사안인가? 투자없는 안전한 환경 빛 좋은 개살구와 같습니다. 현장 작업 환경은 점점더 열악해지고 유휴 인력없이 운영되는 라인은 조합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는 여건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측은 더 이상 이러한 열악환경을 외면한채 개개인 구성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줘야 한다



□ 7월 일정 (지 회)

번 호	일 시	내 용
1	7월 10일(금)	지회 임시 대의원 회의(지회 대회의실)
2	7월 13~14일	지부운영위 및 교섭위원 수련회 (단양 청소년 수련원)
3	7월 15일, 22일	조합원 교육 및 지부장 간담회

이진광 동지의 근황

현재 열심히 재활 치료 중이며 많은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재 행정소송 중이고 부당해고 행정소송 준비 중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입니다.